

#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  
 지난 천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발명품으로 1455년 독일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했던 사실이 1위로 꼽혔다(\*미국 타임사 설문조사, 노벨상 수상자 대상 설문조사).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국은 독일이 아닌 한국이다.

한국은 기록에서나 실물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역사를 갖고 있다. 고려 말 이규보의 저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는 1234년~1241년 사이 '상정예문(祥定禮文)' 50권 28부를 인쇄해 배포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인쇄 실물로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直指)(원제: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

청주MBC 남윤성 PD는 지난 1995년 '직지'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 2부작(>제1부: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제2부:활자로는 없는가?) 등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문화유산인 금속활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연속 제작해 왔다. 그의 최근 작품인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는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으로 건너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탐사한 다큐멘터리로 지난 2월 10일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윤성 PD의 프로그램 제작기를 두 번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주>

절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가 현존하고 있다(1377년 청주 흥덕사 간행,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특히 직지는 2001년 9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인 받음으로써 이제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인 시켰다.

세계 최초로 고려인들이 발명한 금속활자 인쇄술은 조선으로 이어지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에 전파된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일



구텐베르크 활자 모습



본의 역사 문화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는 금속활자 인쇄술 발명가는 구텐베르크라고 가르치고 있다. 과연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가'인가?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독일 구텐베르크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일까? 종이와 목판 인쇄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갔다.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 역시 실크로드를 따라 서양으로 전파된 것은 아닐까?

우리 민족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서역인들과 활발히 교역했다는 기록과 관련 유물이 곳곳에 남아 있다. 13세기 초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고려에서 탄생한 직후 몽골대제국이 건설되었고 이때는 실크로드의 최 전성기였다. 또한 완전 조립식 인쇄에 성공하며 금속활자 인쇄 기술이 절정에 달했던 조선 세종 때의 <갑인자>(1434년)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찍어내기 약 20년 전의 일이었다. 따라서 구텐베르크가 어떤 차원에서든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헌기록은 발견된 것이 없다.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어떤 차원에서든 구텐베르크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우리의 뛰어난 과학 기술이 지난 천년 세계사의 대변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이 밝혀지는 것이고, 그 가능성에 대해 본격 탐사, 논리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국내 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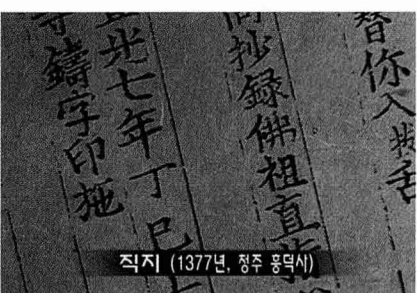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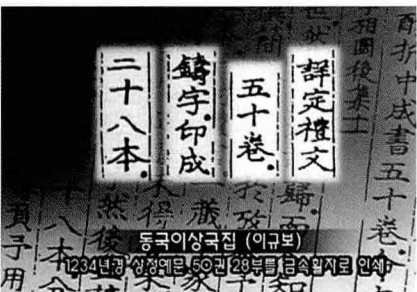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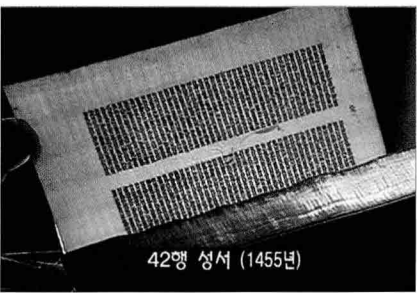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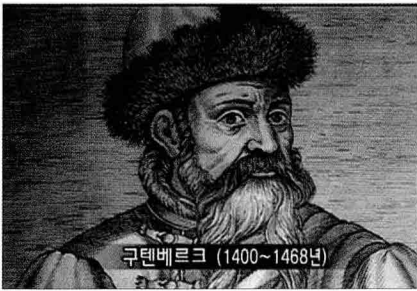
청주MBC에서는 2000년 10월 창사30주년 특집다큐멘터리로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을 제작, 방송한 바 있다. (○제1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 ○제2부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인가? 중국인가?", ○제3부 "한국의 금속활자, 세계로 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야의 세계사적 위상을 심도있게 조명하고자 했으며, 방송 이후 <제2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과기부, 한국과학문화재단), <2000년 방송프로그램21 대상>(한국방송진흥원), <2000년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우수작품상>(방송위원회),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PD상 작품상(한국방송PD협회) 등 각종 TV 프로그램 콘테스트에서 8차례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청주MBC에서는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의 후속편으로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경로를 가칭 '활자로드 (TYPE ROAD)' 라 명명하고, 지난 2001년 11월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공동 기획으로 '활자로드'의 존재 여부를 세계 최초로 탐사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11개국에 대한 해외 취재와 국내 취재를 마치고 2003년 12월 26일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 2부작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비는 약 4억원이 투입됐는데, 청주시에서 제작비의 절반인 2억원,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3천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해 주었다.

### 정말 어려웠던 자료조사, 그리고 취재

2001년 11월 필자는 회사로부터 이 프로그램의 제작을 명받고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들과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먼저 공동 연구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 박물관 3층 자료실에 제작 캠프를 설치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발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웠다.



말이 동서교역로이지 실크로드(비단길), 스텝로드(초원길), 해양실크로드(바닷길) 등의 방대한 역사를 더듬어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대외교류사와 계속 연결시켜나가야 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의 황정하 전 학예연구실장, 이승철 학예연구사와 함께 거의 매일 자정을 넘기며 함께 자료조사와 토론을 거듭했고, 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전 단국대 교수였던 정수일 선생님, 한양대 이희수 교수님, 경북대 남권희 교수님,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몽고, 우즈베키스탄, 이란 등 해외 취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준 해외 코디분들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다. 이분들의 도움으로 취재분량은 상당했으나 실제 편집시에는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생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한다.

### ‘활자로드’의 첫걸음! 먼저 구텐베르크를 알아야...

국내에 번역, 소개된 구텐베르크의 관련 자료는 대개 소개하는 수준의 것들로 구텐베르크의 행적, 인쇄술 탄생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것을 만나기 어려웠다.

먼저 구텐베르크를 자세히 알아야 의혹 제기든 뭐든 해 볼 것이 아닌가!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텐베르크박물관에서 보내온 ‘천년의 인물-구텐베르크’ (Gutenberg-Man of the Millennium 구텐베르크박물관 2000년) 영역본 책을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이 권했고, 즉각 번역을 의뢰했다. 번역은 상명대 겸임교수인 최문희 선생님이 해 주셨는데, 2달이 지나 번역 초고가 나왔다. 이 책은 15세기의 마인츠의 역사, 구텐베르크 행적과 인쇄술 탄생 배경, 구텐베르크 인쇄 기술의 실체,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쓴 논문이 주제별로 실려 있었다. 그러나 논문 어디

에도 구텐베르크가 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 〈구텐베르크는 누구인가〉

구텐베르크는 1400년 독일 마인츠에서 태어나 1468년 68세로 삶을 마감했다. 그의 탄생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1500년에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텐베르크 가문은 200년 전부터 마인츠의 명망있는 귀족이었다. 귀족 출신이었던 그가 어떻게 인쇄기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는 이론적 지식인이었는가, 실제 기술자였는가 여기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는 어떤 자료도 없다. 1434년 구텐베르크는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현재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다. 스트라스부르 문서보관소에는 그가 이 도시에 사는 동안 전쟁에 대비한 징집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 그의 직업은 금속세공사로 분류돼 있다.

###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탄생과 우리가 던지는 의혹〉

구텐베르크는 스트라스부르의 교외에 작업장을 만들고 성지순례기념품을 제작했다. 이 성지순례기념품은 납을 재료로 하여 주물로 만들어낸 것으로 이 기념품 가운데에 빛을 반사하도록 거울을 박아 만들었기 때문에 흔히 반사경이라고도 불린다.

그는 이 사업을 몇 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시작했으나 7년에 한번씩 열리는 성지순례가 당시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관계로 취소되어 구텐베르크와 그의 동업자들은 예상했던 돈을 벌지 못했다. 그리고 동업자 중 한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하고 구텐베르크는 동업자들과의 소송에 휘말린다.

이 소송 문서에는 반사경 사업에 실패하며 곧바로 구텐베르크의 지휘 아래 동업자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기계를 비밀

리에 제작했었다는 기록이 있다.(1440년) 기록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프레세(PRESSE)”, 영어로는 프레스(PRESS), 번역하면 압축기, 압력기, 그리고 인쇄기라는 뜻도 있다.

그러나 당시 유럽에는 오직 필사(筆寫)에 의해 책이 만들어졌던 관계로 “인쇄”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다. 과연 이 “PRESSE”는 인쇄기인가? 아니면 단순히 무엇인가를 제작하는데 있어 그저 누르는 일에 사용했던 단순한 ‘압력기’였을까? 이것이 인쇄기라면 구텐베르크와 그의 동업자들은 어떻게 단 1년만에 금속활자 인쇄 기술을 완성하고 인쇄 기계까지 만들었다는 것인가? 더욱이 성지순례 기품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했던 구텐베르크가 어떻게 갑자기 책을 만드는 인쇄술에 도전하게 된 것일까?

그가 인쇄술에 도전하기 이전에 책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프레세”를 인쇄와 관련된 어떤 기계로 보더라도 과연 구텐베르크는 이론적 지식인(경영인)에 불과했을까? 실제 기술자였을까? 여기에 대해 명쾌히 알려주는 어떤 자료도 없다. 그러나 그가 스트라스부르에 사는 동안 ‘금속세공사’의 직업인으로 분류돼 있던 만큼 금속 가공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유럽학자들은 1440년을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에 도전했던 시기로 강력히 추정하고 있는 것이 유럽 학계의 일반론이다.

〈구텐베르크는 10년? 한국은 200년?〉

1440년 스트라스부르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에 첫 도전했다고 보고, 그 후 약 15년이 지난 1455년! 구텐베르크는 ‘42행 성서’(42 line Bible, 한 면의 줄이 모두 42줄이었던 관계로 붙여진 명칭)를 그의 고향 마인츠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해 완성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장인 하네부트 벤츠 여사는 ‘42행 성서’를 완성하는데 소요

된 시간은 최소 2~3년으로 본다. 금속활자의 주조와 조판기술의 완성, 그리고 인쇄기 제작, 그 후 180권에 달하는 성서의 인쇄와 성서 곳곳에 그려진 삽화 제작, 그리고 제본까지 모두 마치려면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란 얘기이다.

또 하네부트 벤츠 관장은 ‘42행 성서’가 구텐베르크의 최초의 인쇄물은 아니고 아마 ‘42행 성서’ 인쇄 이전에 여러 가지 낱장의 간단한 인쇄물을 금속활자로 찍어보며 일정기간 실험적 차원의 시간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42행 성서’는 두꺼우면서도 상당히 정교하게 인쇄된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시기는 아마도 1450년 전후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에 도전한 시기를 1440년으로 본다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완성기간은 약 10년 안팎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1200년대 초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후 조선 초기 세종 때 ‘갑인자’(1434년)에 와서야 기술의 최고조에 이르렀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바로 조선 세종조의 ‘갑인자’ 인쇄술과 똑같은 수준의 기술이었다. 한국의 경우 인력과 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왕명에 의해 국가(조정)에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년의 세월을 거치며 기술이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해 왔고, 세종 때에 이르러 기술의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구텐베르크는 단 10년 안팎 세월에 당시 최첨단의 인쇄기술을 선보였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과연 구텐베르크는 천재였고, 우리 조상의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인가? 우리 조상의



구텐베르크 성서

창조적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조상들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해 낼 수 있었다는 말인가? 동서교류사 연구에 있어 한국 최고의 석학 중 한 분으로 꼽히는 단국대 교수 정수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교류사 차원에서 보면 항상 문명은 창조와 모방,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뛰어난 과학기술의 경우 주변으로의 전파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선발 주자의 경우 시행착오 관계로 당연히 발전 속도는 더디고 느리다. 그러나 후발주자의 경우 시행착오 기간이 없고, 기존의 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도 전자 보다 더 좋은 기술을 선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최소한 2000년 이전, 이미 기원전에 중국의 비단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건너갔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 ‘실크로드’(Silk Road)! 만약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넘어갔다면 당연히 ‘활자로드’(Type Road)가 있을 것이다. 과연 ‘활자로드’는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계속)

〈남윤성 · 청주MBC 기획특집CP 팀 부장대우〉

